

농식품부, 농작물 생육 첨단정밀예측·관리 연구 현장 방문하여 이상기상 재해 대응 조기 활용 당부

-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, 농촌진흥청의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
연구시설 방문, 연구개발 상황 점검 및 연구자 애로사항 청취

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4일(수)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 및 토양수분이동실험동 등 농업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상황을 점검하고, 연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농업위성센터는 2025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영상 수집·처리 등 위성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로 향후 위성영상 활용 가뭄, 풍수해 등을 관측하고 평가하여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 예측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.

또한 정밀예측 기반의 농업생산기술개발 및 선제적 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토양수분이동실험동에서는 전국 밭가뭄 현황 및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농업용수량을 산정하는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. 정확한 작물의 물이용 효율 산정으로 국가 농업용수 관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토양의 양·수분 평가로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변화 대응에 활용된다.

박 차관은 “이상기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현장을 과학적으로 정밀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하며 “관련 연구개발 결과가 농업 현장에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현장 연구자에게 당부하였다.

붙임 방문 연구시설 현황

담당 부서	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나인지 (044-201-2451)
		담당자	사무관	우미옥 (044-201-2452)

붙임

방문 연구시설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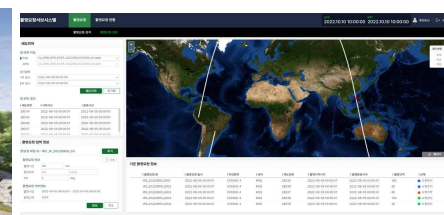
□ 농업위성센터

- (구축 목적) 위성 활용 극대화를 위한 영상 수집·생산·관리 인프라 구축
- (주요 임무) 위성 관측 영상 표준화 및 검·보정 연구,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 융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

○ 시설 및 시스템 사진



센터 조감도



영상수집활용시스템

□ 물·양분 이동 평가 토양수분이동실험동(라이시미터)

- (구축 목적) 무게 자동측정 방식으로 농경지에서 물과 양분 이동을 정밀 측정하여 물·비료 이용효율 증대
- (시설 현황) 총 36개 대형화분(논·밭토양 각각 3종 18개) * 준공('14.5.)
 - 센서(6종 543개) 및 시설·장치(18종 887개) : 총 24종 1,430개
 - * (센서) 무게측정기, 토양수분센서 등, (시설·장치) 토양용액채취기, 지하수위 조절장치 등
 - * 연구작물 : ('15~'18) 중만생종 벼·콩 등, ('19~현재) 조생종 벼·고추 등

○ 시설 전경



관리 동



지 상 부



지 하 부